

심미 부위의 단일 치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이용한 치험례

이승훈*, 김영성, 김원경, 이영규

서울아산병원 치주과

연구 배경

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1)외과적 술식의 횡수를 줄이고 2)치조골의 체적을 유지하며 3)발치와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 삽입 사이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 심미적, 기능적인 이득이 있다.

따라서 외상 등에 의한 상악 전치부의 implant 식립 시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추천된다.

즉시 식립시에는 발치와가 intact한 경우나 작은 골결손이 있는 경우에 차단막의 사용이 필요치 않으나 보다 큰 골결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단막의 사용과 함께 일차 봉합을 이루어야 한다.

이번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 부위에서 발치와가 intact한 경우와 골결손이 존재하는 경우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임상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case 1:

외상에 의한 상악 중절치(#21)의 치관-치근파절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.

그 후 healing abutment 연결하고 gap에 Bio-Oss와 자가골을 충전한 후 Colla-tape과 tissue adhesive로 sealing하였다.

case 2:

외상에 의한 상악 측절치의 수평치근 파절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provisionalization을 시행하였다.

case 3:

상악 중절치의 동요도로 발치 후 implant와 GBR을 동시에 시행하였다.

연구결과

세 증례 모두에서 어느 정도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세 번째 증례에서 인접치의 치간유두가 퇴축되었다.

결론

심미 부위의 단일 치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 적절한 증례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가능한 한 연조직에 최소한의 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, 골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연조직 처치가 요구된다.